

KINU 통일나침반 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2017. 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북한연구실 실장)
김갑식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박영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성윤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제환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전재범 (초청연구위원)

2017. 02.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전반적 특징과 정책방향	1
II. 부문별 내용과 특징	6
1. 정치	6
2. 경제	8
3. 사회·문화	13
4. 대남	16
5. 대외 및 북핵	18
III. 정책적 함의	22
1. 정책 전망	22
2. 대북정책 추진 방향	25
부록. 2017년 북한 신년사 원문	28

I. 전반적 특징과 정책방향

○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과 속도전식 주민 동원 시사

- 내용 구성은 2016년 성과에 무게를 두면서 2017년 과업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강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못함.
- 전년도 성과부분은 크게 ① 당대회, ② 핵·미사일 고도화, ③ ‘70일 전투’·‘200일 전투’의 성과로 구성
- 서사구조는 2016년도 성과가 ‘자력자강’ 정신에 기초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 정신에 충실하여 당대회 결정 관철에 ‘전민총돌격전’을 펼칠 것을 주문하는 내용
- 기존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민 동원을 통한 대내 결속의 길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 가능

○ 경제부문 과업의 실질적 성과 강조, 사회문화 대폭 축소

- 제7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강조하며 2017년 과업으로 경제에 서의 실질적 성과에 주력할 것을 주문
- 새로운 과업 제시보다는 제7차 당대회의 정책 기초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불확실한 정세에 대응하는 자세
- 사회문화부문 과업은 구체성 없이 간략히 처리, 불확실한 대북제재 국면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과업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음.

	2014	2015	2016	2017
1	전체목표	전체목표	전체목표	전체목표
2	경제	당사업	경제	경제
3	사회문화	국방	당사업	사회문화
4	국방	과학기술	국방	사상
5	당사업	경제	사회문화	국방
6	사상	사회문화	제7차 당대회	당사업
7	간부	간부	사상	대남
8	대남·대외	대남·대외	대남·대외	대외

○ ICBM ‘마감단계’ 언급, 공격적 행정책 기조 강조

-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례적으로 핵·미사일 고도화의 성과를 연설 전면에 내세우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
- 핵·미사일 고도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열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단계’에 있다고 밝힘.
-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공격적 행정책의 기조를 재차 확인
- 신년사에서 미사일의 고도화 단계 및 핵무력 중심의 선제공격능력 등 공격적 행정책을 언급 한 것은 처음
- 핵·미사일 능력 신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권 교체기를 맞는 한국 및 미국에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

○ 대북제재 국면에 맞선 ‘전민총돌격전’ 제시

- ‘70일 전투’, ‘200일 전투’가 대북제재 돌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되었음을 암시, 2017년에도 지속 의지를 내비침.
- 이들 전투들이 ‘전민 결사전’의 성격을 가지며,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격퇴했으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했다

고 설명

- 2017년에도 이 전투 정신에 기초하여 새로운 ‘행군길’, ‘전민총돌격전’에 나설 것을 주문
-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올해에도 ‘전민총돌격전’으로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도

○ ‘자력자강’을 구호로 한 속도전식 동원 시사

- 올해 전투적 구호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를 채택
-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에 기초한 ‘자력자강’을 강조하는 전투적 구호를 채택, 전 주민을 상대로 한 속도전식 동원 예상
- 한편 2015년, 2016년 연속 ‘전투적 구호’와 대남 구호 두 개를 제시해 왔으나 올해는 ‘전투적 구호’만 제시

〈표〉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 제시 구호

연도	전투적 구호	대남 구호
2012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 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2013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
2014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 게 일으켜 나가자!	-
2015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 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 나서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연도	전투적 구호	대남 구호
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2017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

○ 대미 관망 자세와 정국 혼란을 틈탄 남한 흔들기

- 이번 신년사는 미국 및 한국의 권력 교체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 내용에 관심 집중
- 새로운 메시지보다 미국에 대해서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용단’과 ‘전쟁연습 중단’을 주문하는 수준에 그침.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과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일단 관망하는 표현에 그침.
- 한국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았고 현 정국을 ‘보수당국에 대한 축적된 분노의 폭발’로 규정
- 통일전선 차원의 남한 흔들기 선동을 강화할 것을 암시

○ 자책어린 감정적 호소와 애민 지도자상 부각

- 올해 신년사에서 이채로운 부분은 김정은이 ‘나는’이라는 1인칭을 쓰며 자신의 통치 소회를 감정적으로 밝힌 부분
- 김정은은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며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술회
- 더 나아가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

실한 심부름군이 될 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한다고 언급

-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모범으로 애민 지도자상을 선전하고 간부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계획된 프로파간다 장치일 가능성
- 한편 연이은 ‘전투’와 함경북도 큰 수해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만큼 이를 위무하는 차원에서 통치 소회를 감정적으로 밝혔을 가능성
- 공포정치와 사회적 규율 및 단속 강화로 쌓였을 주민 불만을 한껏 몸을 낮춘 감정적 표현을 통해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 신년사 형식 변화와 이미지 정치

- 올해 신년사 연설은 2016년에 이어 평양시로 낮 12시에 발표하면서 기존 9시 공식을 깨고 새롭게 신년사 관례를 형성
- 신년사 소개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로 나가 2016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신년사’와 달리 ‘최고영도자’란 호칭을 사용(김정일 사망 5주기인 2016년 12월 17일 이후 김정은의 호칭을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로 통일)
- 2016년 처음 등장한 연설 자료화면이 올해는 보다 많아졌으며 편집에 공을 들인 흔적 보임.
- 2016년 김정은이 몸을 흔들며 원고를 읽고 자세가 불안하고 숨이 차 보인다는 지적들을 신경 쓴 듯 올해는 프롬프트를 보며 안정적인 모습을 연출
- 향후 본격적인 우상화에 앞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계산된 ‘이미지 정치’의 일환일 가능성

II. 부문별 내용과 특징

1. 정치

구분	2016년 신년사 과업 내용	2017년 신년사 전년도 평가 내용	2017년 신년사 과업 내용
주요 내용	• 7차 당대회시 ‘희황한 설계도’ 제시 • 당·국가기관의 인민중시·책임 강조 및 청년중시 • 당중심의 일심단결 및 정치사상 교육 공고화 •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극복	• 7차 당대회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반한 웅대한 설계도 제시 • 7차 당대회 기점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는 만년기틀 마련 • 70일·200일 전투로 ‘당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 신념’ 강화	• 자력자강 기조 하에 7차 당대회 결정관철 • 각 분야에 당의 주도성 견고화 • 대중동원 및 사상사업 통해 당조직 역할 강화 • 간부 통제 강화 및 쇄신 요구(패배주의, 보신주의, 형식주의, 명령주의 척결) • 김정은의 애민정치

○ 올해 신년사에서 평가한 2016년 정치부문

- ‘희황한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2016년 과업에 따라 제7차 당대회시 ‘웅대한 설계도’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닌 추상적 전략 발표에 불과
- 2016년 인민에 대한 당·국가기관의 책임과 청년중시 정책을 과업으로 강조했으나, 당대회 기점으로 ‘당 주도 만년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 외에 세부 성과 미언급
- 2017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당·국가기관의 인민중시 및 인민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으나, 청년을 인민으로 대체

- 2016년 '당중심의 일심단결 및 정치사상 교육 공고화' 과업에 대해 70일·200일 전투를 통해 '당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 신념'을 강화했다고 평가
- 2016년 강조했던 간부들의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극복에 대한 성과 언급은 없고, 2017년 과업에도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제시

○ 각 분야에 당의 주도성 견고화

-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 구축을 제기하며 당주도 군사 및 군대 지배력 강화
-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입지를 분명히 한 김정은과 인민이 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 할 것을 강조
- 당 주도 아래 내각 등 국가기관의 사업 및 관료 통제 지속
-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외부사조 유입에 대한 통제 강화 암시

○ 대중동원 및 사상사업을 통한 당조직 역할 강화

- 제7차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의 역할 강화 제시
- 각급 당조직들이 생산성 향상과 사상공세에 나서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 힘쓸 것을 요구
- 당대회가 제시한 과업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당 및 사회단체의 하부조직에 통제와 규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당 주도의 간부 통제 강화

- 간부들의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해친다며 이에 대한 투쟁을 제시
- 당 정책 수행에서 간부들이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명령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할 것을 요구
- 간부를 비판 대상으로 삼아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결속과 상호지지를 확보하는 전통적 통치방식의 재현

○ 김정은의 애민정치 강화

- 김정은 스스로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맹약하며 대중의 불만을 어루만지는 성군(聖君) 이미지 부각
- 애민 지도자상을 구축하는 애민정치 행보는 관료에 대한 비판과 규율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 가능성

2. 경제

구분	2016년 신년사 과업 내용	2017년 신년사 전년도 평가 내용	2017년 신년사 과업 제시 내용
주요 내용	• 전력: 발전소 정비·보강, 발전능력 조성, 자연에너지 이용 등을 통한 전력 문제 해결 • 석탄: 발전 및 인민 경제 부문 석탄 공급 보장 • 금속: 공장의 주체화,	•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 다수확품종 육종 등의 과학기술 성과 획득 •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주요 부문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 집중 • 과학기술: 국산화, 생산단위와 연구기관의 협동 강화 및 기업의 자체 기술개발역량 강화 • 전력: 설비 및 구조

구분	2016년 신년사 과업 내용	2017년 신년사 전년도 평가 내용	2017년 신년사 과업 제시 내용
	현대화로 철강재 증산 • 철도운수: 열차의 정상 운행 및 철도 현대화 • 농축수산: 과학농법, 기계화, 양어장 확산 • 경공업: 현대화, 원료·자재 보장, 국제 경쟁력 향상 • 건설: 생산·교육문화·주거시설 공급 확충 • 국토관리: 산림복구 본격화 및 환경오염 대책 수립 • 과학기술: 연구사업 심화 및 기업소·농장 내 과학기술 교육 활성화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확립	에서 생산 및 수송목표 수행 •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최고 수준 성과 • 주요 건설장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 창조 • 자연재해로부터의 기적적 승리	물 보수, 다양한 동력 자원 개발 • 금속: 철강재 증산, 원료·연료 및 동력 보장 • 화학: 공장능력 확장, 기술공정 개조,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과업 수행 • 석탄 및 철도운수: 발전 및 공업 부문의 석탄·수송 수요 보장 • 기계: 공장현대화, 고성능 기계설비 생산 • 경공업: 원료·자재 국산화, 소비품 다양화 및 질 제고 • 농축수산: 과학적 영농, 두벌농사 증대, 세포지구 축산기지 정상화, 어로전 적극 전개 • 건설: 중요 대상 건설에 역량 집중, 교육문화·주거시설 공급 확충 • 국토관리: 현대적 양묘장 설치, 산림복구, 환경보호 • 경제지도와 기업 관리의 혁신

- 2016년 경제분야의 성과로는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통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
 - 하지만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동원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미언급
- 2016년 산업부문별 성과에 대해서도 예년과 달리 추상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데에 그침.
 - 2016년 신년사에서 밝힌 산업부문별 과업 내용의 실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와 같이 추상적 수준에서 실적 강조
 - 구체적 성과로는 “우리식의 무인화된 본보기 생산체계들을 확립하고 … 농업생산에서 … 다수확품종들을 육종”만 언급
 -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에서는 보통 대형 건설사업 실적을 제시하며 건설부문 성과를 과시(2012년 희천발전소, 2013년 마식령 스키장, 2014년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5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 올해 신년사에서는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었다고 간략하게만 언급
 -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및 함경북도 일대 수해(태풍 라이언 록) 등으로 인해 목표로 했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여명거리는 2016년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2017년 4월로 완공 시점 연기)
- 2017년도 경제분야 과업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

-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수행 의지를 표명하고 “5개년전략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全民총돌격전”에 나설 것을 강조
 - 5개년 전략 수행과 관련하여 자력자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구체적 수행 계획과 내용은 제시하지 못함.
- 구체적 수행계획 제시 없이, ‘자력자강’ 구호에 의존한 내부역량 결집 모색
- 2017년 투쟁구호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를 채택, 자력자강의 중요성 강조
 - 유엔 결의안 제2321호의 시행으로 인해 대외경제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언급 부재
 -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할 보족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자력자강’ 구호에 의존한 내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데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
- “全民총돌격전을 힘차게 벌여야”함을 강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노력동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 시사
- 악화된 대외경제 환경을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가능
 - 하지만 지난해 70일 전투, 200일 전투를 연달아 실시하여 주민들의 노력동원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
 -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동원정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근로유인도 저하되어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

- 과학기술부문의 과업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과학기술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징
 -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 데 주력하여야”하며,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고,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등 실용적 측면 위주로 언급
 - 군수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과학기술을 생산현장에서 적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 내부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 기계공업을 제7차 당대회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데, 과학기술의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
- 2016년 신년사와 당대회에서 전력공업부문을 가장 먼저 언급, 전력문제 해결에 전 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을 강조
 - 전력공업부문의 언급 순서나 내용으로 보아,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낳았을 가능성
 - 올해 신년사에서 전력부문을 과학기술에 이어 두 번째로 강조하면서, 경제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전력문제를 5개년 전략 수행 성패의 관건으로 제시
 - 전력문제가 국가적 과제임을 언급하지 않는 등 강조 수준은 전년에 비해 완화
 -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의 구성과 실속 있는 운영을 언급한 바 있는데, 올해 신년사에서 실속 있는 운영만을 언급하여, 초기단계이지만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전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2015, 2016년에 간략하게나마 언급했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올해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던 만큼, 경제개혁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올해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 경제개혁보다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

3. 사회·문화

구분	2016년 신년사 과업 내용	2017년 신년사 전년도 평가 내용	2017년 신년사 과업 제시 내용
주요 내용	• 교육조건과 환경 일신 • 사회주의 보건제도에 맞는 치료예방사업 개선 •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 전문체육기술 획기적 발전, 국제경기 체육 신화 창조 • 문학예술부문 시대 명작 창작 • 도덕기강 바로 세워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 기풍	•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 훌륭한 성과들 이룩	•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문명강국 건설 앞당겨 • 과학교육의 해, 전국가적·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

○ 전년도 사회문화부문의 구체적 성과 제시 부재

- 전년도 성과와 관련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는 언급이 전부
-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신년사에서 과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나마 제시해 왔지만, 올해 사회문화부문의 성과는 미제시
- 전년도 신년사에서 제시되었던 과업내용과 올해 성과 설명 사이의 불균형은 과업이 실제 수행 목표로서의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대내 선전용 의미가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

○ 대북제재와 대외고립 속 사회문화부문의 실제 성과 미미

- 70일 및 200전투 동원, 함경북도 수해, 대북제재 등 전반적 어려움으로 사회문화부문에 관심을 돌리기 힘들어 실제 성과 미미
- 제7차 당대회, 핵·미사일, 70일 전투·200일 전투 등의 성과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회문화부문 성과 제시는 대폭 줄었을 가능성
- 신년사 말미 김정은의 자책성 언급으로 볼 때, 2016년 한해 주민 피로도가 높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회문화부문 성과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

○ 2016년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사회문화부문 과업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반면 올해 과업 제시는 간략하게 처리

- 크게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 문명국건설”을 앞당길 것과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할 것을 제시

- 교육·보건·체육·문학예술을 통칭한 ‘문화분야’에 대한 상투적 언급을 제외하면, 과학교육 환경 개선이 그나마 구체적인 언급에 해당
 - 2017년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회문화부문 과업 제시가 현실성을 갖기 힘들고 부담이 될 수 있어 모호하게 처리했을 가능성
- 과학기술교육시설 건설을 통한 애민 지도자상 선전 가능성
-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하겠다고 한만큼 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설과 현장 방문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
 - 이를 통해 김정은 우상화의 일환으로 첨단과학 시설을 치적화 하고 애민 지도자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전망
- 대북제재와 대외고립에 따른 국제경기 체육 성과 언급 부재
- 2014년 ‘체육열풍’, 2015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 대회 입상, 2016년 여자축구 국제경기 우승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 김정은 집권 이후 국제경기 체육신화를 강조
 - 올해는 구체적인 체육 관련 언급은 물론 국제경기 성과에 대한 강조가 없어 대북제재와 국제 체육계에서의 고립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2016년 강조했던 ‘청년’이 사라지고 ‘전민’을 상대로 한 ‘자강’을 강조
- 2016년 신년사에서 ‘청년’ 용어를 10회 언급하며 각별하게 강조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서 ‘청년’을 온전하게 강조한 것은 단 1회

- 2015년 당 창건 70주년, 2016년 제7차 당대회에 맞춰 각종 건설에 청년을 동원하면서 강조했지만, 올해는 ‘전민’을 상대로 한 총돌격전을 강조
- 각종 동원으로 청년층의 불만과 피로도가 높아 직접적으로 ‘청년’을 호명하는 방식보다는 ‘전민’을 광범위하게 호명하는 방식으로 저항감을 줄이려는 의도

4. 대남

구분	2016년 신년사 과업 내용	2017년 신년사 전년도 평가 내용	2017년 신년사 과업 제시 내용
주요 내용	• 자주통일의 새 시대: 조국통일3대원칙, 6·15선언, 10·4선언 • 8·25합의정신 강조 • 통일준비 비판,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 • 남북대화과 관계개선에 적극 노력 • 내외 반통일세력 제거	• 주체통일노선 적극 투쟁 • 최악의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 책임론’ • 남한 보수당국에 대한 전민항쟁	• 자주통일의 대통로: 7·4선언 45돌, 10·4선언 10돌 •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출발점 • 반공화국 행위, 무력증강, 전쟁연습 중지 •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 • 내외 반통일세력 처단, 사대매국세력 준동 분쇄투쟁

○ 북한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투쟁했다고 자평

- “지난해에 우리는 당 제7차대회에서 주체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

○ 최악의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 책임론’ 강조

-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있는 제의 외면”
- “반공화국 제재 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 한국이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

○ 남한정국(‘촛불정국’) 적극 언급,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정세 주장

-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

○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촉구

- 남북관계 개선이 평화와 통일로의 출발점이며 절박한 요구라며, 7·4공동성명 45주년과 10·4선언 10주년을 맞아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개척하자고 주장
- 비방중상,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적대행위,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 중지 등 기존 요구를 반복하며 북한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할 것을 촉구

○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 및 남한정국 개입 시도

-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는 불순한 대북정책 강력 비판
- 파국상태의 현 남북관계를 수수방관하는 정치인은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 대북정책 전환 압박 및 남한정국 개입 의지
- 향후 남한정국 변화를 고려, 대남 비판 수위 조절

○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평화공세 강화

- 올해에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며, 대남정책의 중심축을 하층 통일전선으로 설정
- 고위급 접촉 등 당국 간 회담에 대한 별도의 언급 대신, 당국을 포함한 각 정당, 단체, 국내외 동포가 참가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개최를 촉구
-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대내외 반통일 세력 분쇄를 주장

5. 대외 및 북핵

구분	2016년 신년사 과업 내용	2017년 신년사 전년도 평가 내용	2017년 신년사 과업 제시 내용
주요 내용	• 우호적 국가들과 친선협조관계 확대발전 •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개발 강조	• 자신들만의 힘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 책동 극복 • 국방력 강화의 획기적 진전으로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 오름 • 첫 수소탄시험,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단계	• 자주성 옹호 국가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발전 •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

- 북핵 문제 등과 관련 외교적 성과가 미미했음을 우회적으로 표명
 - 2016년 신년사를 비롯해 이전 신년사 등에서 줄곧 반제국주의적 국제 연대 강화를 주요 과제로 주장
 -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침.
 - 하지만 2017년 신년사 과업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성과 대신 대 북제재에 대한 자주적 대응 능력을 중점 과시한 바, 이는 국제사회 전반이 북핵을 반대하고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현 정세에 대한 교육지책의 일환

- 2016년에 국방력 강화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 2016년 신년사에서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 2017년 신년사에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되었다”고 평가하며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룩되어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자평
 - 구체적인 성과로 “첫 수소탄시험”,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을 인용한 바, 이는 두 차례의 핵실험과 2월의 광명성 4호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보유한 거의 대부분의 단·준·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한 것을 지칭

-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핵능력과 공세적 전략을 시위
 -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은 핵능력 및 핵위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신년사에서는 자제해 왔으나, 과거와 달리 이번

신년사에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핵 위협 수준을 더욱 높인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

- 즉, 이례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마감단계”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아울러 북한은 “전쟁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임과 2017년은 “싸움 준비의 해”라고 언급하며 과거에 비해 핵능력 및 핵위협에 대한 수위를 한층 제고
-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하고도 대폭적인 양보가 없다면 미국에 대한 비타협 노선과 강경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결기의 표현으로도 해석 가능
- 하지만 2016년 미국을 겨냥한 8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 중 1회만 부분적 성공을 보였고, 장거리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및 항법운항기술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아직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 능력이 ‘획기적 진전’을 이룩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

○ 비핵화 요구와 대북제재에 대한 자주적이고 강력한 대응 의지 과시

- 북한은 신년사에서 2016년 국제사회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자신들만의 힘만으로 이를 극복했음을 유달리 강조했는데, 이는 다분히 제재 무용론의 국제적 확산을 의도한 측면이 강함.
- 아울러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의 지속적인 추구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치가 없다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암시

- 이는 그간 비핵화 대화 참여 및 가시적 비핵화 조치에 관한 북한의 기존 요구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결기의 표현

Ⅲ. 정책적 함의

1. 정책 전망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워 일선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타파를 강조, 초·중급간부 대상으로 한 사상투쟁 예상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차 강조하며 말미에 “인민들을 어떻게 더 높이 떠받들까 근심”하면서 ‘인민의 참된 충족’이 될 것을 맹세
 - 자책성 인민 중시 발언은 통치 차원에서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고 ‘인민’을 명분으로 기층 및 지방단위의 초·중급 간부를 다잡는 이중적인 포석 가능성
 - 기층 및 지방단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처벌이 강화되면서 그 여파는 다시 주민들에게도 미칠 것으로 예상
- 선대의 최고지도자 위상에 걸 맞는 우상화 작업 추진 예상
 - 올해 김정일 생일 75주년(2.16), 김정은 당비서 추대 5주년(4.11), 김일성 생일 105주년(4.15) 등 각종 정치행사 예정
 - 주요 기념일 정주년을 맞아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우상화 작업 강화 예상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올 8월에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전후로 우상화 분위기 고취 예상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동원 강화 예상
 - 중요 정치행사와 연계한 동원을 강조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는 주

민들을 정치행사에 동원하여 결속을 다지기 보다는 생산성과와 연계한 실질적인 노력동원에 동원할 것으로 예상

- 2016년에 당과 사회단체 각 단위를 평양에 불러 모아 조직 재강화를 도모했다면, 올해는 각 단위의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성
- 제7차 당대회, 청년동맹·농근맹·여맹·직맹 등 근로단체 대회, 전당초급당위원장 대회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올해는 구체적으로 관철할 것을 주문, ‘집단주의적 생산투쟁’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

○ 대북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내핍과 희생에 기반한 ‘자력자강’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

- 대북제재와 대외 고립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자력자강의 위력’과 ‘전민총돌격전’을 내세움.
- 작년의 경제성과도 ‘자력자강의 한길’로 나가고, 70일 전투, 200일 전투를 한 결과라고 선전, 올해도 ‘자력자강’을 기치로 내핍과 동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전통적인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당 및 근로단체 조직을 통해 주민들을 전민총돌격전에 동원하는 방식 채택

○ 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위한 사회통제 강화 예상

-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을 강조
- 정권 수뇌부와 주민 사이의 결속에 균열을 줄 수 있는 외부사조 및 정보의 유입을 적극 차단하는 데 주력 예상

- 대북제재 국면과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차단 차원에서 물리적·사상적 통제 강화 예상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평화공세와 대남압박의 화전양면전술 구사 예상
 - 핵심정책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 해소 대책 수립 요구
 - 3월 키리졸브/독수리훈련(KR/FE)과 8월 을지프리티엄가디언(UFG)은 2017년 상반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일정한 영향
 -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지만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될 경우, 선제공격 협박 등 대남 비난 및 무력시위 가능성
- 남북군사회담, 국회회담, 제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제안하는 평화공세에 집중할 가능성
 - 7·4공동성명 45주년과 10·4선언 1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공세적 입장 발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추구
 - 남북 사이의 대화국면이 조성된다면 10·4선언 10주년과 추석을 맞이한 이산가족상봉 행사 가능
- 하반기에 북미관계 개선, 한국정국 추이 등을 고려하면서 화전(和戰)의 비중과 강도를 결정할 가능성
 - 미국의 대북정책 모색 기간과 한국의 국내정세 유동성으로 인해 상반기 또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관망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중 북한도발의 재개 가능성 상존

- 신년사 내용과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북한이
전향적으로 핵무기 보유 의지를 단념하거나 핵 고도화 능력 증강
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난망
 - 향후 북미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기간 북핵 국면이 타협모드
보다는 강경대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핵화를 요구하
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더욱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 농후
 - 그 결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개적으로 강력히 불용하고 있
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 또한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만
약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강압의 수준을 높인다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로 이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북한은 2016년과 달리 무수단 미사일, SLBM, ICBM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 도발에 집중할 것이며, 4차 핵실험에
서 미진했던 증폭핵분열탄의 폭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2. 대북정책 추진 방향

-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
 - 신년사를 통해 내부 역량 결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
이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위협 요인으로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방증
 - 유엔 결의안 제2321호에 의해 주력 수출품인 무연탄의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이 밀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거래를 더욱 빈번히 시도할 가능성 농후
 - 따라서 북한의 불법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가려는 노력 필요

- 상반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되 한반도 정세변화에 긴밀히 대처할 필요
 -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제하는 차원에서 탄핵국면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력 과시 필요
 - 기존 정책의 보수적 운용으로 대북정책의 안정성 유지 필요
 - 계획된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정된 정책의 변경은 가급적 자제 필요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외정책 수립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
- 북한의 대화공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역제의로 새로운 남북관계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전술적으로 고려
 - 한국 내부 정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하반기에 북한의 평화공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민함 발휘 필요
 - 협상 전술 차원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로 놓고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북한의 통일전선 차원의 평화공세를 역공
 - 한편 이산가족상봉 등 실리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술 고려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
 -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과 국지적 도발을 국면 전개에 따

라 맞춤형으로 기획하여 시도할 가능성

- 핵·미사일 시험발사와 제재·압박 강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국면 타개책으로 한반도 위기상황 고조로 국지 도발 가능성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협 평가 및 대응의 과정에서 한미 정부의 시각차 및 파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맹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

○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초기 대북정책 공조 및 안정화 필요

-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입안 초기 대북정책의 공조 지속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의 강화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국면에서도 미국과의 사전 조율과 공조 노력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
-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갖는 파급영향과 미중관계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 경사’로의 급격한 회귀나 정책 변화는 가급적 지양 필요

부록. 2017년 북한 신년사 원문

2017년 북한 신년사 발표(1.1)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 2017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동지들 !

우리는 주체혁명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과 날로 빛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스런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력사에 류례없는 만만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숭엄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 드립니다.

나는 또한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2016년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고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김일성 - 김정일주의기치따라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였습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고 조선혁명의 만년기들이 확고히 마련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승리자의 대회,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영광의 대회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련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

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영용한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무적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국방분야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수치스러운 파멸의 길에 몰아넣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자랑스런 승리의 포성을 높이 올렸습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전민결사전,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였습니다.

김일성 - 김정일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이 내세운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방대한 목표가 빛나게 수행되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기롭고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을 확립하고 농업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랑스런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았습니다. 전력과 석탄,

금속, 화학, 건재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생산과 수송전투목표를 수행하여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습니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였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뜻밖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함북도지구들에 대한 피해복구전투에서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일어나 짧은 기간에 기적적승리를 안아왔습니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였으며 인민들의 마음속에는 당에 대한 믿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진 지난해의 련속적인 철야진군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년들은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상, 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신비스러운 힘은 다름아닌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입니다. 적들의 방해책동이 악랄해지고 엄혹한 난관이 겹칠수록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였기에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

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바로 이것이 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나는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믿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인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펼쳐나서야 합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양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위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

자! 》, 이것이 새해의 행군길에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 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에 대한 원료와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여 나가야 합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단계별과업을 제때에 원만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계공장들에서 현대화를 다그치고 새형의 트랙터와 룬전기재,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의 계열생산공정을 완비하며 여러가지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경영전략을 바로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며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단천지구 광산,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의 정상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과일과 버섯, 남새생산을 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힘있게 벌리며 양어와 양식을 근기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현대적인 고기배를 더 많이 무어내고 동해안 지구에 종합적인 어구생산기지를 꾸려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단천발전소건설과 김중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현대화공사, 원산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며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더 많이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이 인민경제전반을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책략을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습니다. 천만군민이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의 두리에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당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합니다. 일편단심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창건 여든다섯돛이 되는 올해에 군력강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 당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전군에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치게 하며 또다시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준비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에서 강도높은 싸움준비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은 항일의 연길폭탄정신

과 전화의 군자리혁명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역척같이 다져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 전투의 승패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며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모든 초급당조직들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과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이 총발동되어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게 하며 동맹원들모두가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답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안목

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제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지난해의 전민항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증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

전북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

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주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하며 주변나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미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정치군사적압력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꺾지 못하였으며 주체조선의 도도한 혁명적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입니다.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그리고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세우기 위해 드세게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나아갑시다. (끝)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통일나침반 17-02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 02-2023-8000 팩스 : 02-2023-8297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 02-2269-9917
인 쇄	2017년 02월
발 행	2017년 02월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